

광남시론

미래시민한인위원회 출범과 한민족 통일

박찬용

(사) 광주한백동맹재단 상임대표 정치학박사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 약 730만명 넘게 생존하고 있는 한민족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2일 광주에서 '미래시민한인위원회'가 출범한다. 이 조직은 한국 내, 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간의 지역 및 정책연대로 더크고 더 넓은 상생정신으로 모두 발전하며 한민족의 위상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있다.

한민족의 해외 이주는 1863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시작으로 중국의 만주지역, 일본 본토 및 사할린, 하와이 및 미국, 중남미 지역 등으로 확산되는 16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려인 이주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중엽 구한말의 사회적 혼란과 절대 빈곤 속에서 비롯된 한반도 북부 주민들의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와 정착이 이뤄졌고 비극적 경험으로 항일 독립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고려인의 한국으로의 귀환이주는 현재 약 8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의 약 95% 이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하고

민족 차세대 청소년 소통에 기반한 평화통일 이해 및 통일 감수성이 신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DMZ현장과 독일 베를린 장벽등의 통일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한반도 미래 평화통일을 기원해야 한다.

한민족 차세대 청소년 소통에 기반한 평화통일 이해 및 통일 감수성이 신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DMZ현장과 독일 베를린 장벽등의 통일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한반도 미래 평화통일을 기원해야 한다.

한민족 차세대 청소년 소통에 기반한 평화통일 이해 및 통일 감수성이 신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DMZ현장과 독일 베를린 장벽등의 통일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한반도 미래 평화통일을 기원해야 한다.

한민족 차세대 청소년 소통에 기반한 평화통일 이해 및 통일 감수성이 신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DMZ현장과 독일 베를린 장벽등의 통일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한반도 미래 평화통일을 기원해야 한다.

한민족 차세대 청소년 소통에 기반한 평화통일 이해 및 통일 감수성이 신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DMZ현장과 독일 베를린 장벽등의 통일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한반도 미래 평화통일을 기원해야 한다.

한민족 차세대 청소년 소통에 기반한 평화통일 이해 및 통일 감수성이 신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DMZ현장과 독일 베를린 장벽등의 통일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한반도 미래 평화통일을 기원해야 한다.

한민족 차세대 청소년 소통에 기반한 평화통일 이해 및 통일 감수성이 신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DMZ현장과 독일 베를린 장벽등의 통일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한반도 미래 평화통일을 기원해야 한다.

한민족 차세대 청소년 소통에 기반한 평화통일 이해 및 통일 감수성이 신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DMZ현장과 독일 베를린 장벽등의 통일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한반도 미래 평화통일을 기원해야 한다.

기고

도민 여러분, 다 함께 투표에 참여합시다

김상모

이통장연합회 전남지부장



다가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회복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큰 혼란을 경험했다.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동시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절감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한다. 혼란을 넘어 정의로,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이러한 변화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참여, 곧 투표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진리를 증명하는 길은 오직 투표 뿐이다.

도민 여러분, 우리 전남도는 늘 정의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전남은 항상 국민의 편에서 서서 진실과 희망의 길을 밝혀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땅, 민주화의 산실로 불리는 이곳은, 늘 대한민국이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하며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기 대선 역시 전남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

요하다. 우리가 가진 정의에 대한 믿음,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책임감을 투표로 표현할 때다. 투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력이며, 역사를 바꾸는 실질적인 힘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를 뽑는 행위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전남의 발전 방향을 정하며,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택하는 순간이다. 유권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불씨가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번 대선 역시 그러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다.

선거는 우리의 권이자,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만약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결과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 힘으로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에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니,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늘 그랬듯 위기의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왔

고, 그 선택은 역사 속에 길이 남았다. 이번에도 우리 전남도가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갈 때, 전남의 이름은 더욱 빛날 것이며, 대한민국의 내일은 더욱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가 왜 투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시민의 의무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와 헌법이 있어도, 국민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투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의지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남기는 길이다. 우리의 무관심이 누군가에게는 권력의 문이 되고, 우리의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견제와 감시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대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계기다. 복지, 교육, 농어촌 정책,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청년 일자리까지,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전남도의 향후 5년, 아니 그 이상이 결정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결정이자, 자녀 세대의 희망을 여는 열쇠다.

전남도가 다시 한 번 전국 최고 투표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한 표가 전남의 목소리이고, 국민의 희망이다. 함께 투표로 정의를 세우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취재수첩

지역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엄벌해야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군인 등 특정인을 사칭해 식당 등에 허위 주문을 하면서 다른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는 이른바 '노쇼' 사기 범죄,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사회적 신뢰까지 위협하는 노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월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노쇼 피해 사건은 70건에 달한다. 2월 4건, 3월 2건에 불과했던 노쇼 피해는 4월이 되자 64건으로 폭증했다.

대다수 사기범들은 군부대 간부, 교도소 직원, 소방 공무원 등이라고 속여 도시락 포장이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보내주며 전후 식량이나 방탄조끼, 음극 키트 등의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었다. 처벌하게 위조된 범부부 소속 공무원의 명함을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노쇼 범죄는 가족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순수한 기부 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청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 소방관을 사칭한 신원 미상 인물에게 속아 2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문자는 '김치찜 15인분, 공깃밥 17개를 진화하 한

청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용의자는 뒤늦게 음식점에 "가고 있다"는 말을 하며 특정 업체의 전화번호를 전달해 방역복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음식점 점주는 소방관들을 위한 음식이라는 말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렴한 가격에 결제를 해주려 했지만 주문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유사 사례가 늘어나자 결국 광주경찰청이 칼을 빼 들었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에 더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추가 배치, 집중 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내수 경기침체 장기화와 12·3계엄사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웃들이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경계가 절실하다.

사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지난 17일 오전에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가 19일 가까스로 완전 진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서쪽 공장(2공장)과 남쪽 공장(1공장) 등 2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화재로 서쪽 공장 전체 면적 14만㎡ 중 7만㎡ 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공장이 국내 2위 업체인 금호타이어 광주·곡성·평택공장 중 1년 타이어 생산량이 전체 2730만개의 58%인 1600만개를 넘는 규모가 가장 큰 생산시설이고 특히 피해를 입은 2공장이 고부가가치 타이어를 제조·출하는 주력생산라인이라는 점에서 피해는 더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광주지역 안전차 공장의 생산 차질은 당장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로 핵심 설비 시설이 소실돼 설비 복구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차 공장 타이어 납품은 물론 글로벌 시장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화재 복구가 기간이 이처럼 장기화될 경우 각종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먼저 광주공장 안직원 2200여명, 식당과 경비 등 150여명의 공장 내 지원 인력, 협력업체 인력 등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고용문제와 임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번 화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넘겨 직·간접 피해를 당한 인근 주민들이 어룡동, 송정1·2동, 도산·신흥동 등 6만7000여명이나 된다. 현재 이들은 극심한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나서야 하고 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 대한 복구비, 화재 진화 투입장비 인차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외지인 지역 정착 '고흥스태이' 성공하길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6만 190여명중 절반에 가까운 45.7%나 된다.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가 된 것이다.

고령인구 비율 또한 오랫동안 전국 1위를 유지하다 최근 경북 의성군(47.5%), 대구 군위군(47.3%)에 이어 3위다. 1960년대만 해도 인구가 20만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6만 인구도 유지 못하고 인구소멸까지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된 것이다.

이런 고령군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시도한 '고흥스태이'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귀농과 귀어, 그리고 귀촌을 희망하는 외지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과 텃밭이 갖춰져 있는 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체류기간 동안 다양한 영농정보를 습득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생활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성한 체류형 공공임대주택인 것이다.

고흥군은 예산 11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심 속 유희시설인 구 한전사택을 매입해 지난해 7월 '고흥스태이 1호'를 처음 열었고 1기 12세대를 운영했다.

수도세, 전기세 등 일부 관리비만 지출하면 되는 장점이 있어 청년부터 노년까지 연령에 구분 없이 인기가 있다. 지난해 1기 입주자 모집 때에는 14세대만 참여했지만 올해 2기 모집(11세대) 때에는 전국에서 540가구가 몰려든 것이다. 남양면 귀농귀촌행복학교 부지 내에 31억5000만원을 투입해 조성, 최근 입주를 시작한 '고흥스태이 2호'는 원룸형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1호,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이 갖춰져 있고 입주일부터 1년간 체류할 수 있다고 한다. 입주 예정자(총 11세대 14명)는 서울, 경기 등 도시지역 전문직 종사 퇴직자가 대부분이며, 평균 연령은 57세다. 특히 이들 중 귀촌 희망자 5명, 귀농 4명, 귀어 1명, 귀향 1명 등 지역정착 희망자가 11명이나 된다. 당초 취지대로 외지인의 지역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성중인 '고흥스태이 3호'(청년공공임대주택 45호), '고흥스태이 4호'(스마트 영농 빌리지 60호)는 물론 앞으로 여촌형, 산촌형 등 거점별·테마별로 지속 확대할 예정인 '고흥스태이'사업이 성공하길 바란다.

Table with 3 columns: Name, Phone Number, Address. Includes contact info for Gwangju City North District Office and various departments.